



금융감독원

# 보 도 참 고



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



보도	2023. 6.1.(목) 조간	배포	2023. 5.31.(수)
----	------------------	----	----------------

담당부서	상품심사 판매분석국	투자 상품팀	책임자	팀 장	김시형	(02-3145-8236)
			담당자	선 임	강지영	(02-3145-8239)
		금융상품 총괄팀	책임자	팀 장	이창규	(02-3145-8228)
			담당자	선 임	김용빈	(02-3145-8232)

## [금융꿀팁 200선] <144>

기초편

### 잠깐! 요즘 채권이 인기라는데 이것만은 꼭 확인 후 투자하세요

- 최근 채권금리의 상승\*으로 개인투자자들의 채권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투자자의 장외채권 순매수규모가 '22년에 20.6조원으로 전년대비 4.5배 증가\*\*

\* 국고채 1년물 월평균 금리 : (22.1월)1.42%→(22.6월)2.60%→(22.12월)3.70%→(23.3월)3.45% (출처 : 한국은행)

\*\* '20년 3.8조원 → '21년 4.5조원 → '22년 20.6조원 → '23.1월~4월 13.9조원

- 그러나 조건부자본증권 등 채권의 종류와 위험이 다양하고, 채권특성 및 거래방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민원도 발생하고 있어, 채권투자시 유의사항을 144번째(기초편), 145번째(심화편) 금융꿀팁으로 안내드리고자 함


#### [기초편] 채권투자시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!

- 1 채권은 원금손실도 가능하며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습니다.
- 2 채권의 신용등급뿐만 아니라 상품위험등급도 꼭 확인하세요!
- 3 채권의 투자설명서, 신용평가서 등을 꼭 살펴보세요!
- 4 채권투자 후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가격이 하락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5 채권은 투자 후, 중도매도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단기자금으로 장기 채권에 투자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!
- 6 장외채권 투자시 유사채권(동일 신용등급·잔존만기)과 수익률을 비교해 본 후 투자하세요!

**꿀팁 1 채권은 원금손실도 가능하며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습니다.**

- 채권에 투자한다는 것은 발행기관에 돈을 빌려주는 것이므로 발행기관이 파산할 경우 원리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- 특히, 후순위채권은 일반채권에 비해 금리가 높으나, 변제순위가 낮으므로 선순위채권이 먼저 변제된 후에 원리금 회수가 가능하여 발행기관이 파산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**발행기관 파산시 채권의 변제순위**

(순위 높음)					(순위 낮음)
우선변제권을 가진 각종 비용, 세금, 공과금 등	채 권				주식
	일반채권 (선순위)	후순위채권		신종자본증권 (영구채, 후순위)	
		만기 5년 이상 후순위채권			
		↳ '조건부자본증권' ◀			

- 가령, 최근 금융기관 등이 다수 판매중인 조건부자본증권은 후순위 또는 후후순위(신종자본증권\*) 채권이므로 변제순위가 낮으며

\* 조건부자본증권은 만기가 5년 이상인 후순위채권과 만기가 없고(영구채) 후후순위 특약이 있는 신종자본증권으로 구분되며, 후자의 투자위험이 더욱 큼

- 발행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채무상환 및 이자지급 의무가 모두 없어지게 되므로 원금손실위험에 유의해야 합니다.

- 한편, 채권은 금융회사별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원리금을 보장해주는 예·적금과 달리 예금자보호 대상\*에서 제외되므로

\* 예금자보호대상에는 예적금, 계좌예수금, 원금보전신탁, 예금성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있음(상세 내용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(www.kdic.or.kr) 참조)

- 주식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안심하지 말고 채권 발행기관의 파산위험을 살펴보고 투자하여야 합니다.

## 꿀팁 2 채권의 신용등급 뿐만 아니라 상품위험등급도 꼭 확인하세요!

- (사례) 투자자성향이 위험중립형인 A씨는 최근 조건부자본증권\*의 신용등급이 AA-인 것을 확인하고 매우 안전한 채권으로 생각하였으나, 고위험(2등급) 상품인 것을 알게 되어 투자를 고민중

\* 발행사가 부실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특정 사유 발생시 채무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과 특정 사유 발생시 발행사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등이 있음

- 대개 투자자들은 채권투자시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등급만을 확인하나, 판매회사가 별도로 금융상품을 평가한 상품위험등급도 확인해야 합니다.
- 금융회사는 채권 판매시,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 외에 투자자 입장에서 환매의 용이성, 상품구조의 복잡성 등 여러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품 위험등급을 부여하고 있으므로,
- 동 상품의 위험등급이 자신의 투자자성향에 맞는지 확인하고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.

### 채권의 신용등급 vs. 투자성상품 위험등급

신용등급		
장기등급	단기등급	의미
AAA	A1	원리금상환 가능성 최고 수준
AA+, AA, AA-		원리금상환 가능성 매우 높음
A+, A, A-	A2	원리금상환 가능성 높지만 경제변수에 영향받기 쉬움
BBB+, BBB, BBB-	A3	원리금상환 가능성 부분 인정되지만 저하될 가능성
BB+, BB, BB-	B	원리금 상환 가능성에 불확실성 내포
B+, B, B-		불확실성 상당하여 투기적 요소가 큼
CCC	C	원리금상환 의문시
CC		원리금상환 가능성 낮음
C		원리금상환 가능성 매우낮음
D	D	채무불이행 상태

(예시) 투자성상품 위험등급			
5~6등급 (초저위험)	국공채 및 AA-이상, A1		
4등급 (저위험)	A+ ~ A-, A2		
3등급 (중위험)	BBB+~BBB-, A3		
2등급 (고위험)	BB+~BB-	B	특수사채* · 조건부 자본 증권
1등급 (초고위험)	B+이하, 무등급	C	

\* 전환사채(CB, 투자자가 정해진 조건에 따라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), 교환사채(EB, 투자자가 정해진 조건에 따라 발행자가 보유한 특정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채권), 신주인수권부사채(BW, 신규 발행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채권) 등

**꿀팁 3 채권의 투자설명서, 신용평가서 등을 꼭 살펴보세요!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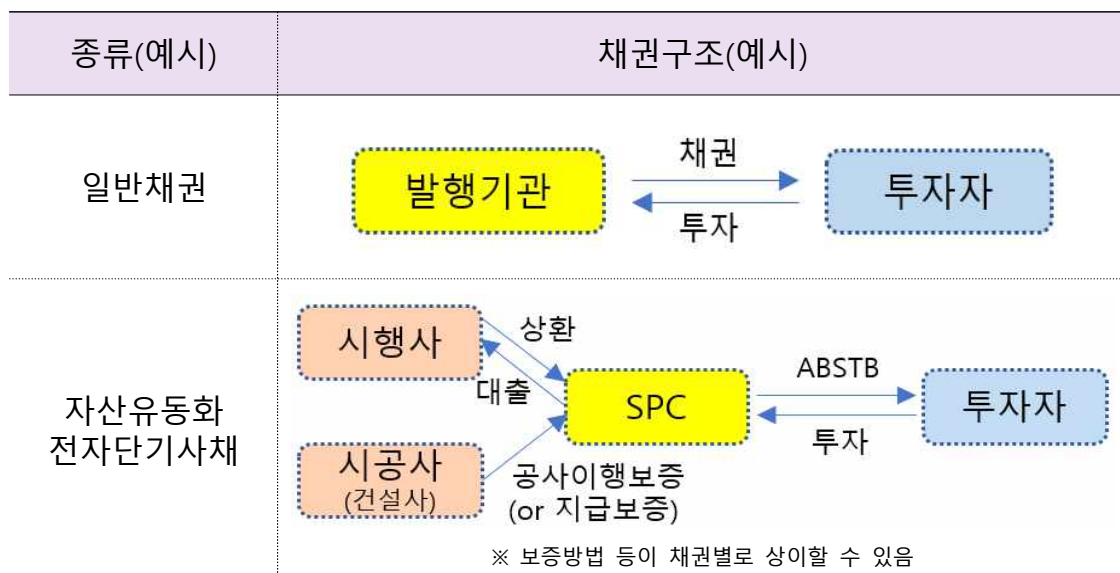
- (사례) B씨는 최근 자신의 어머니가 OO증권에서 안전한 건설사의 회사채로 추천받아 채권에 투자하였으나, 투자설명서를 읽어보니 부동산PF 관련 유동화채권임을 알게 되었음

- 대개 투자자들은 채권이 펀드나 파생결합증권보다 상품구조가 간단하다고 생각하여 수익률만 확인하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- 그러나 투자수익률, 만기 등 채권의 기본적인 정보 외에 발행기관의 사업위험 등 원금회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꼼꼼히 확인 후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.
- 가령, 위 사례의 유동화채권(ABSTB\*)의 경우, 개발사업의 특성, 신용보강 내용 등 위험요소가 다양하므로 투자설명서 또는 신용평가서\*\*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.

\*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(Asset Backed Short Term Bond)

\*\* 신용평가기관이 채권별 특성 및 위험을 평가한 리포트

**채권의 구조 비교 : 일반채권 vs.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**



- 투자설명서, 신용평가서 등은 금융회사 홈페이지, 예탁결제원의 세이브로(SEIBRO)나 금감원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### 채권 주요 정보 확인 가능한 곳

핵심(상품) 설명서	채권 정보	투자설명서	신용평가서
금융회사 홈페이지 또는 직원 문의	<b>예탁결제원 SEIBRO</b> (http://seibro.or.kr) (메뉴) 채권 → 종목상세내역	<b>금감원(DART)</b> (dart.fss.or.kr) (메뉴) 공시서류검색 → 공시통합검색	<b>금감원</b> (www.fss.or.kr) (메뉴) 업무자료 → 금융투자 → 신용평가공시

**꿀팁 4** 채권투자 후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가격이 하락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- 채권투자수익은 채권에서 지급하는 이자와 채권의 매입·매도가격의 차이에서 발생하는데, 만약 채권투자자가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한다면 매입시점에 채권투자수익률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.

### 채권투자시 수익률 계산방법

$$\text{채권투자수익률(\%)} = \underbrace{\left( \frac{\text{이자수입}}{\text{매입시 채권가격}} \times 100 \right)}_{\text{이자수익률}} + \underbrace{\left( \frac{\text{매도시 채권가격} - \text{매입시 채권가격}}{\text{매입시 채권가격}} \times 100 \right)}_{\text{자본수익률}}$$

→ 만기까지 보유시 '액면가격'

※ 이자수익률은 채권의 표면금리에 의해 결정되며, 자본수익률은 채권의 매입매도가격의 차이에서 발생

- 그러나, 채권을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 매도시점의 채권가격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게 됩니다.
- 채권의 가격은 시중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데, 이는 시중금리가 상승하면 신규발행 채권의 금리가 높아지므로 낮은 금리로 이미 발행된 채권 인기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어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입니다.


- 반대로 시중금리가 하락할 경우, 신규발행 채권의 금리가 기존의 채권보다 낮을 것이므로 기존 채권의 인기가 올라가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.
- 따라서 투자자는 시중금리의 변동에 따른 채권의 가격 변화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하며,
  - 향후 시중금리가 낮아져 채권가격 상승이 전망될 때에도 예상보다 금리변동이 천천히 이루어지게 되면 투자자금이 장기간 묶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.

**꿀팁 5** 채권은 투자 후, 중도매도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단기 자금으로 장기채권에 투자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!

■ (사례) C씨는 급하게 목돈이 필요하여, 1년 전 장외채권을 매수하였던 OO증권사에 중도매도를 문의하니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었음

- 투자자가 장외채권에 투자 후 채권을 매입한 금융회사에 중도매도를 원하더라도 금융회사에 따라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.
- 또한, 중도매도가 가능한 경우도 해당 채권의 유통상황이나 시장금리 등에 따라 투자자에게 다소 불리한 가격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.
- 한편, 금융회사에서 직접 장외매수하였더라도 해당 채권이 상장되어 있는 경우 HTS/MTS 등을 통해 장내 매도할 수도 있으나,
  - 해당 종목의 장내거래량이 적을 경우, 거래의 체결이 매우 어려울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.

※ 장내채권의 종목별 시세 및 거래량 등은 금융회사 MTS/HTS 외에도 한국거래소의 **KRX정보데이터시스템**\*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\* data.krx.co.kr → 기본통계 → 채권 → 종목정보 → 개별종목 종합정보 → **종목명** | 

- 따라서, 투자자는 장외채권을 매수하기 전에 우선 해당 금융회사에서 중도매도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확인 후 거래하는 것이 좋으며
- 무엇보다, 단기에 필요한 자금이 장기채권에 묶이지 않도록 채권의 잔존만기가 운용자금의 투자 목표기간과 일치하는지 확인 후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.

**꿀팁 6** 장외채권 투자시 유사채권(동일 신용등급·잔존만기)과 수익률을 비교해 본 후 투자하세요!

- (사례) D씨는 A증권사에서 장외채권을 매수하기 전, 채권의 가격(수익률)이 적정한지 다른 증권사와 비교하고 싶었으나 동일한 채권을 취급하는 곳을 찾을 수 없었음

- 장외채권은 거래소의 수요·공급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는 장내채권과 달리, 금융회사가 채권조달비용·유동성현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채권가격을 결정합니다.
- 또한, 장외채권은 해당 금융회사가 보유중인 채권내에서 매수가 가능하므로 회사별로 취급채권이 상이할 경우 가격 비교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- 다만,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(kofiabond.or.kr)에서 '채권시가평가 기준수익률' 등을 통해 잔존만기 및 신용등급별 평균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



-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 채권수익률 등 조회화면**

